

■ 보험수가 11.82% 인상 근관치료분야 대폭 인상

보건복지부는 10일자로 의료보험수가를 평균 11.82% 인상하고 본인 부담금은 70세를 기준으로 이원하여 70세미만은 3,500원, 70세 이상은 2,500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일 수가를 평균 5.8%인상한 바 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와 날로 악화되는 의료기관 경영안을 감안, 금년에도 한차례 수가를 인상하게 됐다.

복지부의 수가 두자리수 인상은 지난 88년 이후 처음이다.

치과는 이번 수가인상에서 치협 보험위원회의 철저한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최소한 평균인상율보다는 높게 인상되어 치과, 의과간의 수가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인상에서는 보존분야에 역점이 두어지고 방사선과 마취분야도 크게 개선된다.

즉일 발수근충, 발수, 근관치료 근관충전 등 엔도분야의 수가 산정기준이 현행[1치당]에서 [1근관당]으로 전환되 [단 근관수가 X근관수]로 산정케 된다.

또 근관와동형성료가 신설되고 침윤마취료가 의과의 근육주사료 수준으로 인상되고 산정기준도 [1일당]에서 [1/3약당]으로 조정되며 약골절수술료의 경우에는 (주)가 삭제되어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갖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인상과 관련

[의료보험수가를 정부 물가관리차원에서 통제하기 시작한 77년 이후 소비자 물가는 년 연평균 9.23%, 전국 근로자 명목 임금지수는 18.46%나 인상되었으나 의보수가는 7.98%만 올라 의료기관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진료비 과다청구 등 부조리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수가인상이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번 수가인상조정으로 의료기관 진료수입은 평균 7.54% 늘어나고 보험재정은 약3천 7백87억원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3.45%가 증가된다.

■ 대한구강해부학회 제1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대한구강해부학회는 지난 11월 25일(토) 오후 경희치대 지하강당에서 여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경희치대 신계원 교수의 사회로 고재승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 박병건, 오인섭 선생의 표창장 전달식, 전년 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 등이 있었다. 이어 진행된 임원 개선 순서에서는 고재승 회장의 유임을 결정하였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안심의 등

의 순서로 총회는 진행되었으며, 차기(15차) 학술대회는 11월3주 원광치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의안 심의에서는 학회지 년2회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을 위한 투고규정 5조를 논의 하였으며 용어 심의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또 이날 오후 2시부터 개최된 학술대회는 전남치대 채이석 교수의 Cytogenetic Approach to Genetic Disease 특강과 13편의 연제가 발표되어 관심을 끌었으며 총회 이후 조출한 해부학회 송년의 밤도 개최되었다.

■ 대한약기능교합학회 정총 성료

대한약기능교합학회는 지난달 25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14회 정기총회와 제13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회무와 결산보고, 사업계획심의와 학회 자체적인 인정의 제도 실시의 잠정적인 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96년도 예산안은 총 4천39만여 원을 확정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교합 용어집 발간 8백만원, 연수회 7백만원, 종합학술대회 6백40여 만원 등이다.

사업계획으로는 교합학 기초지식 책자 발간, 연수회 개최, 회원증가 운동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확정했다.

한편, 학술대회는 「측두 하악관절 장애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심포지움 8연제가 진행됐으며 연대치대 교합학 교실 김세진씨의 「측두 하악관절장애 환자의 자기공명영상 조건과 교합상태 및 임상적 증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등 12개의 논문이 발표됐다. 아울러 신인 학술상은 송영복씨(연세치대 교합과)가 수상했다.

대한구강보건학회 학술대회 성료

대한구강보건학회(회장 김계종)는 2~3일 양일간에 걸쳐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2연제의 특강과 일반연제 43연제가 발표됐는데, 김종배 서울치대 교수의 「사회보장제도와 구강진료」와 박기철 단국치대 학장의 「미래로 지향하는 임상 예방 치과 진료」의 특강에 이어 일반연제는 공중보건학 분야와 예방치학 및 기초연구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3일에는 화순 대구CC에서 골프대회를 가졌다.

대한구강악안면 방사선학회 제6회 전공의 학술대회 및 송년 학술집담회 개최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는 지

난 12월 9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2 강의실에서 연세치대 치과 방사선학 교실 주관으로 제6회 전공의 학술대회 및 95년도 송년 학술집담회가 여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학술집담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 되었는데 1부 순서에서는 경북치대 손정익, 최갑식의 「이공의 위치 및 형태에 대한 방사선학적 연구」을 비롯한 12연제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2부 순서에서는 송년 학술집담회가 개최되어 스웨덴 Göteborg 대학의 Dr. Gröndahl H. G 교수의 「Comprehensive oral X-ray diagnosis using multimodal tomography」 특강이 있었으며 장소를 옮겨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학회 송년회가 있었다.

치기협 대의원 총회 신임회장에 박용의씨 선임

대한치과기공사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캐피탈 호텔에서 제31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회장선거에 있어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회장출마자 전규호, 조동환, 박용의씨 등 3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 총2백50명의 대의원 투표 중 1백25표를 득표한 박용의씨가 제19대 치기협 회장으로 선출 됐다.

박용의 신임회장은 정열을 바쳐 21세기를 대하는 협회를 만들겠다

며 당선포부를 밝혔다.

또 의장에는 고흥철씨, 부의장에는 김상일, 이창재씨를 선임하는 한편 박광용, 김영산, 정병오씨를 임기2년의 감사로 각각 선출했다.

아울러, 총회는 96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사업비 8천8백여만원, 회의비 3천7백60만원, 예비비 1억 90여만원을 최종 확정했으며 이와 함께 내년도 사업 계획이 결정 됐는데 회비징수강화, 기공요금현실화, 관련 법규 연구, 치과기보 발간 활성화, 회관건립기금모금, 치과기공용 기자재 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차트주문

TEL. 277-8867
266-8398
FAX. 268-5301

광고문의

TEL. 277-8867
266-8398
FAX. 268-5301